

# 구난상황시 애로사항 및 구난 세력의 중요성

2021. 10. 13.

SINOKOR SHIP MANAGEMENT

## 1. 선주사의 선박관리 목표

- 1) 승무원의 안전
- 2) 선박의 안전
- 3) 환경 보호
- 4) 화물의 안전

## 2. 구난 (비상예인)

- 1) 구난 (Recovery, 救難)
  -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(선박에 실린 화물 포함)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.
  - 선박관리회사에서는 구난이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비상예인상황으로 사용.
- 2) 선박건조 기술의 발전 및 관련 기기 내구성의 발전, 육상과의 통신등을 통한 지원의 제약이 없는 현재, 선박의 비상예인(구난)을 결정한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선박관리 System중 최악의 상황

### 3. 비상예인상황에서의 애로사항

- 1)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Time loss로 발생
- 2) 선정된 구난업체를 통한 Towing 선박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
  - 작업중 Towing wire 절단사고
  - 선박으로 이동시 Towing 선박의 기관 고장
- 3) 발생빈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Towing 과정이나 Towing 선박에 대한 검증 및 자체 판단이 어렵고 결국 단순 입소문과 비용상의 장단점에 제한적일 수 있음.
- 4) Towing을 위해 출발부터 작업완료시까지의 일괄되지 않은 정보 공유

### 4. 비상예인에 대한 육해상 인식

- 1) 유조선과 같은 특수선의 경우 별도의 비상예인장치 설치
- 2) 그 외 화물선의 경우 SOLAS 에 의거하여 현존선의 경우에도 선박에 맞는 비상예인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(2012.1.01)
  - 이러한 절차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에서 이용가능한 현존장치나 장비에 기초해서 유지하여 유지하고 있음 .
- 3) 비상예인을 대비한 업무에 중요성을 협약에서 요구하여 선박 자체에 적용된 시점이 10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에 의한 예인관련선 구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음

### 5. 연관된 외부 이슈

- 1)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.1.27 부터 시행
- 2) 구난이라는 상황이 선박관리에서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인명보호를 위한 보다 신뢰가 가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

## 6. ETV (Emergency Towing Vessel)

- 1) 해당 당국이 인명과 환경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예인 목적의 다목적 보트
- 2) 2017년 해양경찰청에서 주체한 ‘SMIT 초청 방제구난 전문가 양성 교육 계획’에서 교육 중에 SMIT측에서는 한국에서도 ETV 유지의 필요성을 권고함.
  - 구난 발생시 구난업체 수배 및 수배후 현장 이동까지 발생하는 Time loss를 해소할 수 있고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.

	국가	ETV	기타
1	스페인	14	Bollard pull 228Tx2, 128Tx2, 158Tx1
2	터키	11	통항량과 위험도가 높은 터키해역 (Bollard pull 105Tx2)
3	독일	8	독일연안해역 최대 2시간내 대응 (Bollard pull 200Tx1, 100Tx3)
4	노르웨이	7	Bollard pull 110~150 T x3
5	프랑스	5	on charter Bollard pull 200 Tx3, 160Tx2, 124Tx1
6	스웨덴	3	Bollard pull 100 Tx3
7	알제리	3	Bollard pull 200 Tx1
8	영국	2	초기에는 4척이 4개의 운영구역을 회전단위로 할당 (30분내 출항준비개념). 현재는 스코트랜드해역
9	네덜란드	1	on charter
10	폴란드	1	
11	남아프리카	1	Bollard pull 181 T, on charter
12	아이슬란드	1	Bollard pull 110 T
13	핀란드	1	

## 7. 선주사가 필요한 구난 서비스

- 1) 준비된 선박, 검증된 기술, 안전한 작업, 합리적인 가격.
- 2) 육상의 소방서비스현장의 5개의 실천 항목중 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습”처럼 긴급 예인이 필요한 선박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한 수습은 결국 외부 업체, 즉 구난업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신속성 부족 및 안전을 위한 전문성 미흡에 대한 Risk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.